

교수일반분과/교육A/04/

K대학의 혁신적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개발과 기독교적 가르침에 관한 실행연구 - ‘청소년문제와 보호’ 수업에 적용한 하모니티칭플러스 교수법

김세광(고신대학교)

1. 들어가며

잘 가르치기 위한 시도는 시대적 과제이다. 구성주의라는 개념으로 열린 학습으로 창의적 교수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적 변화와 새로운 시도는 지속적인 변혁의 선상에 있다. 바른 가르침의 방식을 도모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길 원하는 교사의 욕구가 선행되었을 때 새로운 방식의 교육적 변혁은 실행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의 부담은 일반교육의 교사보다 더 크다.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내용, 즉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이 수업이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 맞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다. 혁신은 사전적 의미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또는 그런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육현장에서 실행 연구한 결과물을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RISS에서 국내학술지 영역으로 검색한 결과 2건의 논문을 볼 수 있다. 박혜경(2016), 대학 영어강독 수업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사례 연구와 김세광(2014), 대학재학 후기 청소년을 위한 문제기반학습(PBL)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직접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행을 위한 현장연구이다. 잘 가르치기 위한 부담과 빠르게 바뀌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적 연구가 더 요구됨을 볼 수 있다.

김영환 외(2019)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된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 변화 동향분석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들의 변화양상을 정부별로 분석하여 향후 교육혁신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RISS에서 ‘교육혁신’ 만을 키워드로 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출간된 논문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학위논문 66

편과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245편을 합한 총 312편을 선정하였다. 4개 정부에 따라 교육혁신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제시된 키워드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통적인 ICT교수매체와 관련된 주제어들은 감소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ICT와 관련한 키워드들(예, 4차산업혁명, 거꾸로학습(교실), 기술수용모형 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연구와 교육혁신의 속도, 연구의 분량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교육혁신적 실행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세계관에 기반 하여 혁신적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개발과 실행연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의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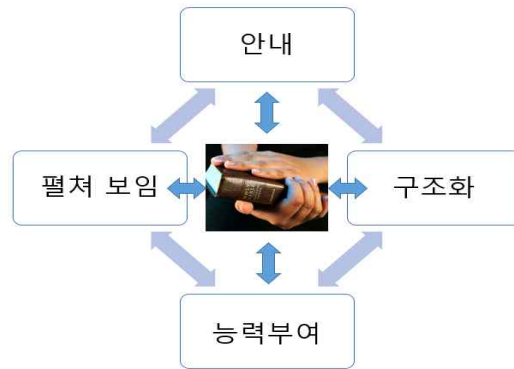
- 첫째,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육현상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은 무엇인가?
- 둘째, 혁신적 교수법은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 셋째, 혁신적 교수법으로 개발된 수업의 실제 현상에서 학습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넷째, 하모니티칭플러스 교수법은 새로운 교육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적 가르침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패러다임은 ‘기독교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점은 ‘창조’인데 창조는 성장하고 개발된다. 이 성장과 개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영역은 창조 질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산업, 인쇄, 가정, 과학 등 인간 문화의 광대한 전 영역들이 창조의 본질로 회복되길 원한다(Albert M. Wolters, 1985, 1992 :55).

기독교적 가르침도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현장의 잠재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창조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이 실천되지 않을 수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1]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요소인 구조화, 펼쳐보임, 안내, 능력부여가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각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사의 효과적인 가르침, 즉 안내(guiding)를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구조화와 펼쳐보임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 중심의 구조화와 펼쳐보임을 줄여나가고 학습자에게 능력부여를 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Brummelen, 1988: 1996: 53-57).



[그림1]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

출처: Harro Van Brummelen(1988: 1996: 54; 2010: 8, 김세광, 2013)

John Van Dyk(2000: 2003:138-153)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브루멜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먼저 ‘안내’(guiding)의 방법들로서 모델링, 동기유발, 훈육, 경진활동, 격려를 제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 구조화는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지칭하며, 교수전략, 학급의 구조화이다. 즉, 가르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뜻하며 구조화 또한 안내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다이크의 ‘펼쳐보임’(unfolding)은 “학생들이 아직 알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펼쳐보임을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드러내기’(disclosing)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전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르침의 유형,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과정 내용을 열어가는 가르침의 유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펼쳐보임은 드러내는 활동을 포함하지만, 이 수준을 넘는 활동이며, 연관짓기(connectedness)의 특징을 가진다. 학습자가 배운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과, 자신의 경험과 문제에 연결하고 적용하여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 다이크는 ‘능력부여’(enabling)란 “섬김의 활동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능력부여는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학습자에 대한 교육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각 요소들은 각 각 그 의미와 방식이 다르지만,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성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특성과 각 요소를 실천 할 수 있는 하위 실천목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창의적 교수법

창의적 교수방법은 다양한 교수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것은 창의적 교수방법에 대한 협의(狹義)이다. 이것은 하나의 단일한 방식이라기보다 교육에 대한 관점, 즉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교수법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학생들의 ‘창의력개발을 위한 교수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 또한 단편적인 견해이다. 창의적 교수법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방식 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 교수법에 대한 또 다른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모책이나 기법들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 또한 하나의 소견이며, 창의적 교수법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학습능력, 기억능력, 실용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과 얻기’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시스템은 유동적이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최신의 연구 결과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접목시킨다. 그리고 일반 교수법과 달리 교사의 개입보다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 교수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Instructor-led, Participants-centered: 강사의 지도아래 참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개념이다. 이것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Bob Pike, 2003).

3)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방법이다.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친구’, ‘짝’을 의미한다. 하브루타는 아람어에서 유래하였고,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을 가진 ‘하베르’와 어원이 같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질문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교육으로 획일화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교육방식이다. Kent(2010)는 하브루타를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맥락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히브리어 ‘하베르’의 어원은 ‘하브’다. 이 말의 뜻은 ‘은혜’, 또는 ‘신세’를 의미한다. 유대인의 세계에 있어서 친구란 서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브루타가 빛을 찾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갈 수 없으므로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다. 성경의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브루타 교육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성공적인 학습에 서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모든 학습자의 소통과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황병준, 김지숙, 2018).

하브루타의 내용은 토라와 탈무드를 사용한다. 토라는 모세오경, 선지자서,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탈무드는 신앙과 생활규범양식을 가르치는 지혜의 글이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학습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학습 그 자체가 종교적 목적이 되는 내재적 학습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나 지속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가정으로 제사 의식을 들여와 가정 식탁을 성전으로 대신했다. 그들은 하브루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활동이며 영토와 나라가 없던 유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유대인의 생존, 존재적 가치를 계승시킨 패러다임이다.

유대인의 창의성은 그들의 이중적인 지식관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텍스트)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인간들의 상대적인 다양한 관점과 해석에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상이하다. 이런 그들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도입되는 방법은 방향의 설정에 오류가 생기고 부작용을 낳게 되어 지속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교육의 당위성을 회복해야 한다. 단순히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 모방해서는 안될 것이다. 외현적인 도구나 방법으로만 도입해서도 안될 것이다. 교육은 가치와 철학,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철학과 세계관을 세우고 비전과 미션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 하브루타를 위해 선정되어야 할 텍스트와 주제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윤리, 도덕적 양심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는 하브루타를 하는데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브루타는 창의교육이면서도 인성교육이다. 이를 위해 고전 텍스트를 이용해도 좋다. 고전을 통해 선인들의 지혜와 철학적 의의를 지금 나 즉, 현재의 문제로 재해석하고 인간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름과 다름을 허용하는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다. 개인은 사회와 타인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Schultz, 2013). 허용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브루타의 원리를 반영하여 구성해야 한다. Kent(2010)는 하브루타를 실행하는 6가지 원리와 과정을 경청하기, 재확인하기, 반문하기, 집중하기, 지지하기, 도전하기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김남예, 2015). 본 연구에서는 켄트의 하브루타 실행원리를 기반으로 하브루타 학습토론 전략을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4) O2O[Online to Offline]

O2O. 단어 그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이다.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나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한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계한 수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O2O 방식을 블렌디드러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혼합된 학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인 혼합 뿐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및 매체의 통합, 다양한 교수전략의 적용 뿐 만 아니라, 업무와 학습의 통합, 생활과 학습의 통합으로 까지 확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다(조경희, 2010).

블렌디드러닝은 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적인 정보기술 발전에 기초한 온라인 학습과 상호작용적 참여를 동반하는 전통적 학습과의 통합을 이루어낸다. 블렌디드러닝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지혜와 일대일 개별코칭을 통해 지원된다(Kaye Thorne(2003).

‘블렌디드러닝’에서 온라인 학습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개별학습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을 주며, 여러 형태의 블렌디러닝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Kaye Thorne, 2003). 먼저,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적이며, 적시에 실행할 수 있고,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동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학습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수업상황 이 외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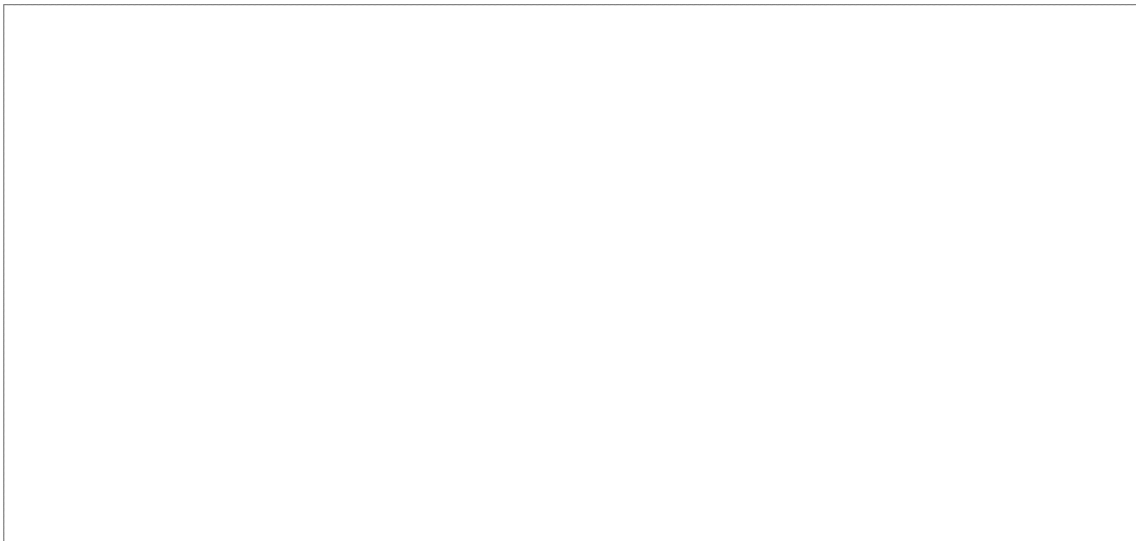
3. 연구방법

1) 실행연구

연구방법은 2019년 6월 K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공모한 혁신적 교수방법을 적용한 수업 개발-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공모전에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토대로 2019년 2학기 수업을 실행하고 있다.

기독교교육과 전공선택과목 ‘청소년문제와 보호’ 수업에 참여한 24명의 학생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메타인지전략을 활용하여 수업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위한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하고 분석한 실행연구이다.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의 실행구조는 [그림2]와 같다. 기독교세계관에 기반하여 CTT : 창의적교수법, O2O : Online to Offline / Offline to Online, 하브루타 학습토론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와 소통과 피드백, Space : 창조적공간 이라는 교육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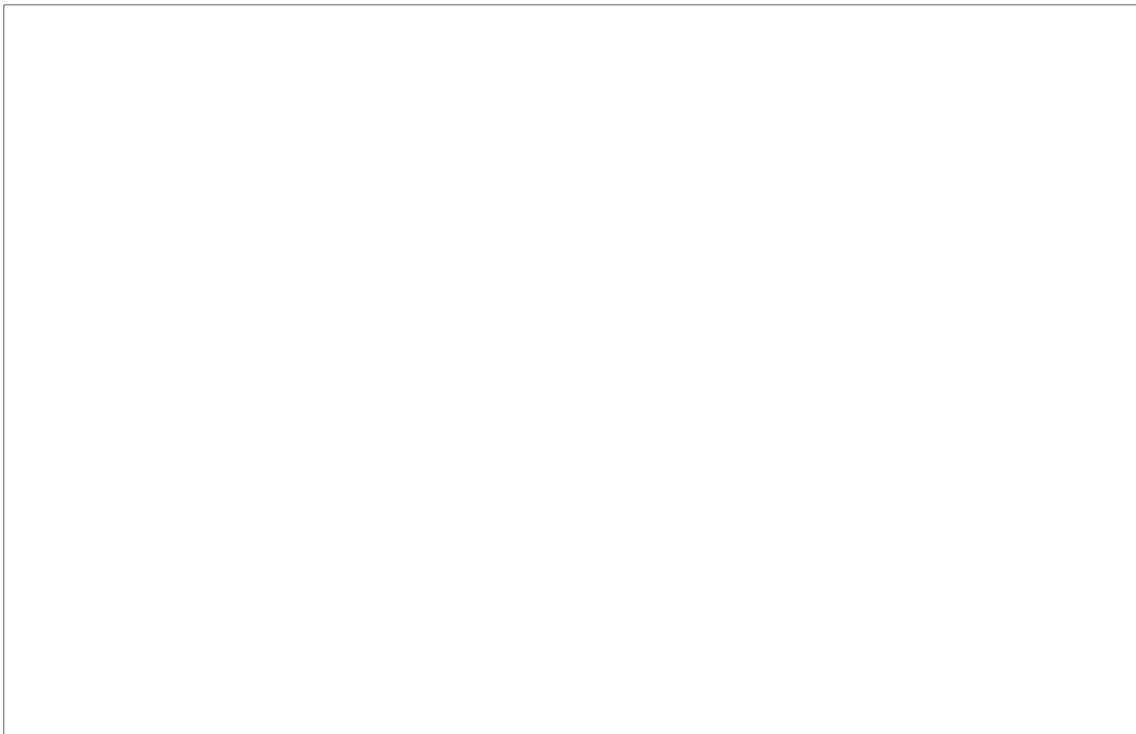


[그림2]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 실행의 구조

2) 실행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실행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연구자 개인의 관점을 넘어 참여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기록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관찰자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참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 소통 공간 BAND를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이 온라인 수업에 잘 참여하고 적극적 청취를 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수업성찰 일지와 Plickers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인식수준을 평가하고 메타인지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와 기타자료를 통한 통찰과 해석, 전체 수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평가를 순환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3]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 실행의 타당성 전략

3) 연구절차

혁신적 교육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년 6월에 K대학에서 실시한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 사례공모전에 연구자의 수업사례 신청 안이 당선되었고 이를 위하여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사례 공보전을 위한 수업계획서가 완성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업계획을 구성하면서 혁신적 교수방법에 대한 탐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실행연구의 빈약함을 인식하고 본 과정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를 강화하였다.

이후 혁신적 교수방법 구상을 위한 문헌연구와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메타인지전략과 하브루타 학습토론 방식의 수업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창의적이면서 융합적 방식의 수업을 구상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며 그 과정만으로 혁신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통찰만

으로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기에 동료 연구자에게 본 연구를 위한 혁신적 교수방법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작점에 없었던 '공간'의 개념을 혁신적 교수방법에 적용하게 되었다. K대학이 교육혁신 사업으로 문헌 정보관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창조공간을 수업의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브루타 학습전략을 구상하였고 수업에 적용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연구의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의 의미를 연구의 결과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표 1. > 하모니티칭플러스 연구절차

연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계획	실행	반성
2019, 6~7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사례 신청 및 당선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 사례 공모전을 위하여 수업계획서를 완성함	수업 계획서 구성을 하면서 혁신적 교수방법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 인식함
2019, 7~ 8 방학 중 혁신적 교수방법 구상을 위한 문헌 연구 및 전문가자문회의	메타인지전략, 하브루타 학습토론 방식 수업적용 가능성을 모색함	- "혁신적 교수방법"에 대한 실행은 무엇인가? : 창의적 융합적 방식의 수업구상
2019, 9 동료 연구자 자문 (교육컨설팅 전공자)	학습자 참여 방식의 연구로 전환 학생과의 상호작용,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둠	출발점에 없었던 '공간'의 개념을 혁신적교수방법에 적용함 전환의 계기가 됨
2019, 10 하브루타 학습토론 전략 완성	하브루타 학습토론 전략 적용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지 못했던 하브루타 방식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함

4. 하모니티칭플러스의 실행 결과

1)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수업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론을 해석하지 못 했을 것이며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정적 이었을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 A의 성찰일지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까?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시하는 교사는 이 질문을 품에 안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행하는 교사의 질문하나에 달려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정리해보는 그 자체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고를 구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생이 서두에서 “기독교학교가 아니었다면...”이라는 가정이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독교학교에서만 기독교적 관점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또 다른 질문과 함께 기독교사로서 일반학교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가르치기 위한 시도는 무엇인지

2) 공간의 이동이 사고의 확장이 되는 수업

"따분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열린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 사고도 폭넓게 열리게 되는 것 같았다." 학생 B의 성찰일지



[그림4] 창의적 공간을 활용한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

공간의 이동은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가져 온다. [그림4] 창의적 공간을 활용한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은 기존의 강의실에서 이동하여 문헌정보관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열린공간 새로운 공간이 주는 신선함이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에도 영향을 끼친다.

3) 정체성 확립이 가능한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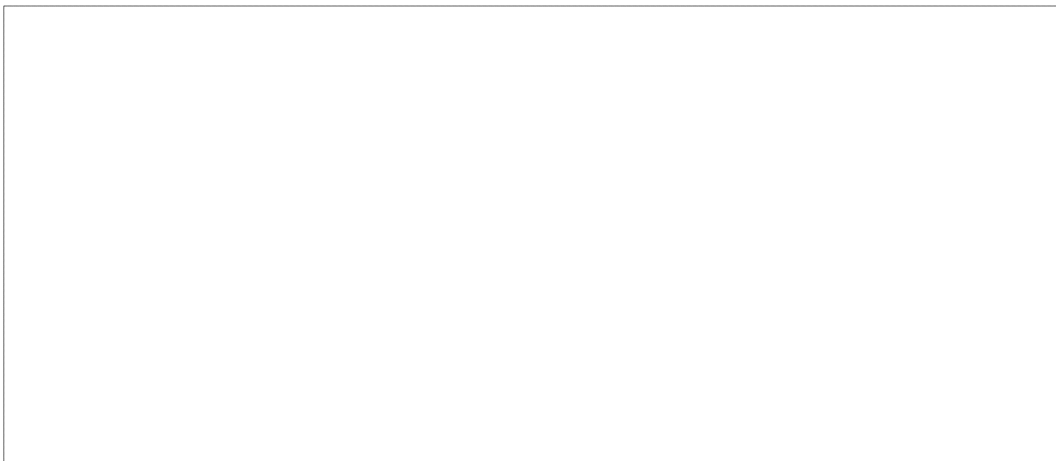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이다. 기독교교육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이 학업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C의 성찰일지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각자의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깨닫게 한다. 이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이유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따로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청소년문제의 현상으로 나타난 청소년성문제와 관련된 사회현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응한 학습자의 성찰이다. 진정한 혁신이란 학습자의 본질적 자아정체성을 찾은 것이라고 본다.

4) 다양한 가치관, 수평적 수업

"조원들과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하여 수업 내용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진부한 수업이 아니라 생각을 정립할 수도 있고 활기찬 수업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의 수업 시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수업이다." 학생 D의 성찰일지

생각의 교류가 자유로운 환경은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다양한 가치관과 수평적 구조의 수업이 가능한 것은 공간과 구성원들의 신뢰적 관계, 교수자의 질문의 방향이 융합된 결과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교사의 두려움 없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그림5]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 실행과 기독교적 가르침

[그림5] 는 하모니티칭플러스 수업의 실행을 앞서 논의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원리에 기반하여 구조화한 것이다. 안내, 펼쳐보임, 구조화, 능력부여의 원리가 혁신적 교수방법의 실행으로 학생들의 성찰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5. 나가며 : 시대적 요구와 기독교적 가르침에 반응하기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기반 하여 혁신적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개발과 실행연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혁신적 교수방법의 실천이 기독교적 가르침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로 서술된 부분은 약 6개월 이라는 시간과 학습자와 상호작용한 성찰과정의 기록의 일부부만 제시 한 것이기에 전체적 맥락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목적에서 제시한 ‘기독교세계관에 기반 하여 혁신적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개발과 실행연구의 의미’를 논하면서 이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4차산업혁명, 거꾸로학습(교실), 기술수용모형이라는 교육혁신이 일반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행을 위해 o2o, sns 소통공간의 활용, 하브루타 등 다양한 교육방법의 융합과 창의적 실행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방식이다.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 방식으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방법의 융합을 시도했다. 교육혁신은 새로운 시도를 의미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혁신은 어디까지인지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었다. 교육혁신을 위한 여러 교육방법을 융합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방법이 일반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시대는 또 바뀔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적 변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반교육의 교육혁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르침의 절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수평적 교육방법인 하브루타 등의 교육적 실천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광(2014), 대학재학 후기 청소년을 위한 문제기반학습(PBL)과 기독교적 가르침, 기독교 교육정보, Vol.43.

김영환, 이승민, 배혜림, 손미(2019),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 변화 동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Vol.29 No.1,

조경희(2010). “블렌디드러닝 토론학습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박혜경(2016), 대학 영어강독 수업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사례 연구, 신앙과 학문, Vol.21 No.2,

황병준, 김지숙 (2018)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4, 209-242.

Albert M. Wolters(1985) Creation Regained-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199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

Bob Pike(2003). 김경섭·유제필 역(2004).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학습자 중심의 참여교육』. 서울: 김영사.

Harro Van Brummelen(1988).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기학연교육연구모임 (1996).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IVP.

_____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이부형 역(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디딤돌』. 서울: IVP.

Kaye Thorne(2003). Blended Learning. 김성길외 공역 (2005). 『블렌디드러닝』. 학지사.

Kent(2010).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6(3). 215-245.